

이하복가옥의 입지와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한중구^{1*}

¹청운대학교 인천캠퍼스 건축공학과

Site and Space of Lee Ha-Bock's Traditional House

Jong-Koo Han^{1*}

¹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Chungwoon University

요약 본 논문은 서천군 기산면 신산리 120번지에 위치한 중요민속자료 제197호로 지정된 이하복 가옥을 대상으로 입지분석 및 공간구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하복가옥의 입지는 풍수적으로 잘 갖추어진 배산임수(背山臨水)의 면견형(眠犬形)의 터를 입지로 선정하였다. 가옥의 공간구성은 ㄱ자형 안채, 一자형 사랑채와 광채 등을 대지에 순응해서 ㄷ자 배치로 조성한 중부지방의 전통적인 농가의 모습을 하고 있는 초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날 화려하고 규모가 큰 반가들이 많이 남은 현실에서 조선시대 민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몇 채 안 되는 초가로서 건축학적인 가치가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Abstract The paper studies on the site and space composition of Lee Ha-Bock's traditional thatched roof house. The house is located at a site with back to the mountain and facing the water and the rear and front mountains formulate a shape of Myungeonhyung(a sleeping dog figure) with HyungGug theory of Pungsu. The house has ㄱ shaped Anchae, 一 shaped Sarangchae and Gwangchae. Those are formulate □ lay out followed the land form. Through the research I found the house shows a typical traditional farmhouse in the middle of Korea of Josen period. Nowadays there are many large Giwajip(tile roofed house) of Josen period is remained but only a few thatched-roof house is lived. In this situation, the house has considerable architectural values as a traditional thatched roof house.

Keywords : Lee Ha-Bok, Traditional House, Pungsu(Fengshui), Space, Site analysis

1. 서론

이하복 가옥은 서천군 기산면 신산리 120번지에 위치하며 중요민속자료 제197호이다. 이하복선생은 목은 이색의 18세손으로 현재 문화재로 지정된 가옥은 고조부 제익(濟益)의 이전 대에 이곳 신산리에 터전을 잡으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하복선생의 자서전에 따르면 비록 양반가라고는 하나 변변한 재산이 없어 매우 가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제익부부는 여러 대에 걸쳐서 내려오는 뼈저린 빈곤, 무지, 외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피나는 투쟁을 하였다고 한다. 선생의 보수도 제대로 주지 못할 형편이라

낮에 나무를 해서 갖다드리는 것으로 학비를 대신하고 밤에야 집에 필요한 나무를 하여 불을 때는 힘든 생활을 하면서 큰아들 면직(冕植)을 어렵게 교육시킨다. 아들은 기대에 부응 벼슬을 얻어 해민원 참사관에까지 이르게 된다.

제익의 셋째 아들인 병직(李昞植)은 구한말 내각의 자문기관 역할을 한 중추원(中樞院)의 의관을 지냈다. 그의 손자 대에 형규(亨珪)에 이르러서는 집안을 잘 일구어 한산의 대지주가 되어 수천 석에 이른다. 이하복가옥의 시초가 되는 초가로 된 안채 3칸을 건립한 것이 형규 대의 초기 집의 모습이고 재산이 늘면서 그 부가 바탕이

본 논문은 한옥문화(2013년 겨울호)에 처음 보고한 연구에 기초한 것입니다.

*Corresponding Author : Jong-Koo Han(Chungwoon University)

Tel: +82-32-770-8176 email: jkhan@chungwoon.ac.kr

Received August 24, 2015

Revised October 19, 2015

Accepted December 4, 2015

Published December 31, 2015



Fig. 1. Lee Ha-Bok's house

되어 사랑채와 별채를 증축하면서 가옥이 확장되어 반듯한 모습을 갖추게 된다[1]. 가옥의 이름이 붙은 이하복은 조상들이 어렵게 모아 물려준 유산을 아낌없이 육영사업에 모두 내놓고 평생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청빈한 생활을 하면서 선비정신을 잃지 않았다. 이런 가풍 속에서 집은 6.25전쟁과 초가지붕이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뀌는 새마을운동의 광풍 속에서도 초가가 갖는 전통문화로서 초가지집의 가치를 알았던 그의 선견지명으로 오롯이 살아남아 1984년 문화재로 지정이 된다.

본 논문은 한국의 중부지역에 위치한 초가지자 문화재로 지정된 이하복 가옥을 대상으로 입지에 대한 풍수고찰과 가옥의 공간구성을 분석하여 전통가옥에 풍수가 어떻게 적용되었고 공간배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조선시대의 민가연구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입지의 풍수고찰

가옥의 북서쪽에 위치한 100미터 높이의 주산에서 내려온 용맥은 동남쪽으로 내려오다가 가옥 뒤에 나지막한 현무봉을 만들고 우측으로 방향을 틀면서 가옥 쪽으로 내려온다. 풍수에서 용으로 칭하는 산줄기는 가옥이 있는 곳에서 이르러 머리를 숙이며 멈춘다. 가옥의 좌측과 우측에서 내려오는 물은 가옥 전면에 합쳐지면 삼합수(三合水)를 이루고 갈지(之)자 형태로 살아 움직이듯 행동하면서 우백호 끝자락의 물이 빠져나가는 곳인 수구(水口)를 통해 흘러간다. 수구 쪽에 가보면 수구에는 물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을 막아주는 작은 바위가 있다. 음양이론으로 살펴보면 물은 움직이므로 양(陽)으로 보고

풍수에서 용으로 표현하는 산은 움직이지 않으므로 음(陰)으로 본다. 이 둘 음양 즉 남녀로 표현할 수 있는 물과 용이 조화라고 하는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남녀 간의 관계도 그러하듯이 서로가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천천히 관계를 조절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물 또한 너무 빠르지 않고 유유히 흘러야 한다. 물의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그 속도를 조절해주는 유속조절 장치가 있어야 하는 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물이 흘러나가는 부분인 수구(水口, 破口라고도 함)에 있는 작은 산이나 바위들이다. 작은 산이나 바위들이 있는 이들에 부딪히며 유속이 저항을 받아 천천히 흐르게 된다. 이곳의 수구에는 바로 유속의 조절역할을 수행하는 풍수에서 수구사(水口砂)라고 하는 작은 바위가 있어 음양 조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집 뒤에 있는 현무봉은 70미터 정도의 나지막한 높이



Fig. 2. Sugusa(水口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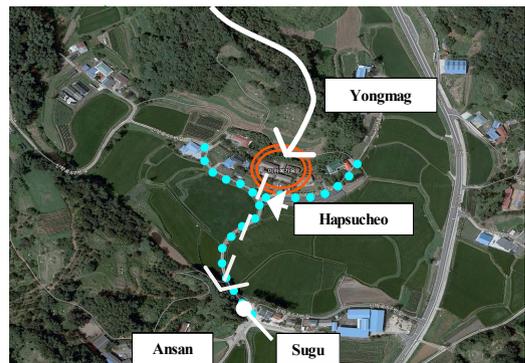


Fig. 3. Pungsu Analysis

의 봉우리로 머리를 남동쪽으로 드리우고 있다. 이하복 가옥은 현무봉에서 내려오는 용맥을 타고 오다가 좌측과 우측에서 내려오는 물이 합쳐지는 합수지점 안쪽에 터를

잡았다. 현무봉 뒤의 주산에서 집터를 감싸며 내려오는 가옥에서 바라볼 때 우측에 있는 산줄기 즉 우백호는 조금 더 앞으로 진행하여 집 앞까지 도달하여 집 앞에 있는 산인 안산(案山)이 된다. 좌측에 있는 산인 좌청룡은 주산에서 내려온 산은 아니고 다른 갈래의 산에서 온 산으로 손님산인 객산(客山)이다. 허나 주산에서 내려온 산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청룡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집의 오른쪽을 지키고 있어 별 문제는 없다. 또한 이렇듯 가옥을 지켜주는 좌, 우의 산들이 여러 겹으로 감싸면 더욱 더 좋은 기운이 보호될 수 있어 좋은 것으로 본다. 이 가옥의 집 앞에서 보면 가옥을 감싸는 좌청룡과 우백호는 겹겹이 감싸면서 산의 정기가 뭉쳐진 혈을 보호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옥을 형국론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현무봉은 정면에서 볼때 정상이 평평하여 오행상 토성(土星)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오른쪽으로 둥근 형상의 머리가 보인다. 이런 형태의 산은 산의 모습을 사물에 빗대어 그 성격을 판단하는 풍수이론인 형국론(形局論 또는 물형론)에서



Fig. 4. Four God Hills(四神砂) around the House

개의 형국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만히 살펴보면 이곳에는 온순한 한 마리의 견공이 오른쪽으로 머리를 두고 비스듬히 누운 자세로 양지바른 곳을 차지하고는 따뜻한

햇살을 한껏 받으며 평화로이 잠을 청하며 쉬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이런 형상의 형국은 잠자는 견공의 형상으로 면견형(眠犬形)이라 한다. 개의 형상을 하고 있는 산에서는 좋은 기운이 모여 있는 지점인 혈(穴)자리로 젓가슴이나 코 잔등을 꼽는다. 아울러 면견형에는 앞에 있는 안산으로는 개의 밥그릇인 구유가 있어야 한다. 실제로 이 가옥은 배의 젓가슴에 해당되는 위치에 가옥을 안치하고 있으며, 집 앞에 마주하고 있는 산인 안산(案山)을 가옥에서 바라보면 가로로 길게 누워있어 농가에서 나무토막이나 돌을 속을 파낸 후 소나 말 등 가축들에게 먹이를 담아주던 그릇인 구유에 해당되는 형상의 안산이 앞에 놓여있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5. Myungyeon-hyung(Sleeping Dog Shape)

3. 가옥의 공간구조

원래는 이 집은 초가로 이은 한옥 6채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중 동쪽에 위치한 1채를 해체하여 동생 은복에게 주어 다섯 채만 남게 되었다고 한다. 서쪽에 있는 6칸이 원래 있던 집의 초기형태에 해당되는 모옥(母屋)이다.



Fig. 6. A Manger shaped Ansan(▼) correspond to Rice Bowl

이 모옥의 구조는 ㄱ자형으로 모두 외여닫이문이며 서쪽에서부터 부엌, 방 두칸 그리고 대청과 헛간이 이어져 있다. 그러나 실제 이하복선생의 조부 병직이 결혼을 해서 처음 집을 지었을 때는 비좁은 부엌에 연결된 방 두 칸

과 헛간이 딸린 작은 초가집이었다고 한다. 그 후 동편으로 방 한 칸과 헛간을 가져 형태로 연결하여 증축하게 된다. 그리고 집의 아래에 일자형의 사랑채를 새로 지었다. 사랑채는 서쪽으로부터 창고 한 칸, 부엌 한 칸, 쌍창으로 된 방 두 칸으로 구성되어 있다.[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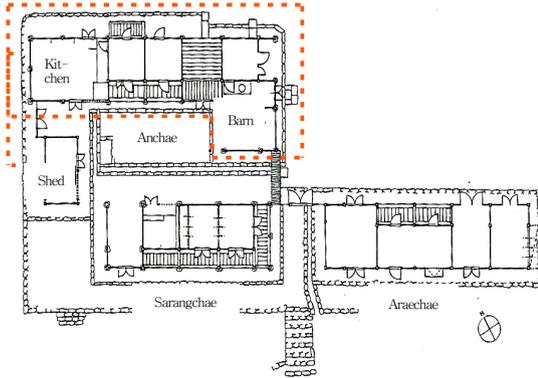


Fig. 7. Site Plan (Dotted Line; Primitive Form)

3.1 안채 공간

안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안채는 과거 우리네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작고 정겨운 초가삼간으로 중부지방의 전통적인 농가의 모습을 하고 있다. 기단은 한단으로 구성된 외벌대 기단으로 그 위에 튼실한 막돌 초석을 기둥 밑에 고여 높였다. 각 방 앞에는 평평한 디딤돌이 하나씩 놓여있다. 안마당에서 보면 안채의 맨 좌측(서쪽)에는 부엌이 있다. 부엌은 자연스럽게 흰 목재인 곡재(曲材)를 사용하여 좌우에 서있는 기둥을 연결하는 가로부재인 상인방(上引枋)과 하인방(下引枋)을 가로지르고 널빤지 두 쪽을 이어붙인 널문을 설치되어 있는데 보통 밖에 위치한 빗장이 부엌 안에 있어 안에서 빗장을 걸게 되어 있다. 널문 상부에는 환기를 위한 살창이 나있고 우측에는 빛을 유입하기 위한 살창이 있다. 살창은 여름에는 좋지만 겨울에는 이곳을 통해 찬바람이 유입되므로 보통 겨울이 되기 전에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창호지를 바르기도 한다. 방문 당시 수도관 등을 열지 않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열피복재를 살창의 살대 사이에 끼우고 밖으로 비닐을 덮어 바람이 들이지 않게 대비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하복선생의 아들 기원선생께서 생전에 이곳에서 식사를 해결하시면서 추워서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부엌 옆 안방에는 띠살무늬 외작덧문과 그 옆에 아랫목 머리맡 부분에 큰 문을 열지 않고도 밖을 내다볼 수 있도록 눈썹재기창이 나있는데, 이런 형태는 전남이나 경남지방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안방 옆의 옷방에는 띠살무늬 외작덧문이 있다. 문에 댄 문살은 안방의 경우 수직 방향으로 댄 장살이 12대, 가로방향의 동살이 상 4대, 중 7대, 하 4대의 합 15대로 장살은 음수(陰數), 동살은 양수(陽數)로 꾸며져 있고, 옷방의 덧문은 장살 11대, 동살이 상 5, 중 7, 하 5로 합 17대로 모두 음수(陰數)로 되어 있다.



Fig. 8. Anchaekitchen and 2 Rooms(Left), Shed with a Wooden Door

옷방 옆에는 대청이라 부르는 공간이 있다. 허나 대청이라는 이름과 달리 대청은 그 옆방의 툇마루와 벽으로 막혀있고 통상 대청마루가 툇마루와 같은 높이로 연결하는 데 비해 툇마루보다 높이가 낮으며 아래 인방(下引枋) 중간, 중간에 동자기둥을 대고 앞쪽에 널문이 나있는 것 등을 살펴볼 때 대청보다는 광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여겨진다. 청암선생의 자서전을 보면 원래는 대청마루가 없었는데 조부께서 돌등메 종산(宗山)에서 벌목해서 마루 판자를 놓아 대청으로 개조했다[3]는 대목을 볼 수 있다. 그래서인지 바깥 형태는 광이지만 중앙에 설치된 널문에 문을 잠그기 위한 빗장둔테와 빗장이 보이지 않는다. 대청 옆에는 건넌방에 해당되는 아랫방으로 불리는 방이 한 칸 있고 안마당 쪽으로 외작덧문이 있고 그 앞에 불을 지피기 위한 아궁이가 있다. 아궁이가 있는 아랫방 앞에는 새로 지은 아래채와 연결되는 중문이 있고 중문 아래로 헛간이 있다.

3.2 사랑채 공간

안채를 짓고 어느 정도 시일이 흐른 후 증축된 사랑채는 경사지에 축대를 쌓은 후 두벌의 기단 위에 지어졌다. 사랑채는 앞의 정면에서 보았을 때 좌측(서쪽)으로부터 광, 부엌 그리고 쌍창이 딸린 된 방 두 칸이 있다. 사랑채



Fig. 9. Sarangchae

의 전면과 우측에는 빗간을 두고 마루를 놓아 각 방들 사이를 편리하게 오갈 수 있게 하였다. 안채와 달리 쌍창으로 한 것은 외부로의 개방성을 높이기 위함으로 보이고 작은 사랑방 쌍창 위쪽으로는 빗살무늬 교창을 두어 격을 높여 화려한 느낌도 든다. 그러나 쌍창 아래에 머름대로는 동자주와 머름청판 등이 없는 나무부재로 단순하게 처리한 통머름을 사용하여 검소한 모습이 느껴진다. 쌍창은 문물거미에 살대를 넣어 띠살무늬를 만들었는데 문살은 수직방향으로 댄 장살이 10대, 가로방향의 동살이 상 4대, 중 9대, 하 4대의 합 17대로 되어 있다.

사랑채에서 바라보면 전면의 남동쪽으로 산의 정상이 등그런 오행상 금성(金星)에 해당되는 산들이 보인다. 산의 높이가 낮아 태음금성(太陰金星)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런 형태의 산에는 주로 북과 덕의 기운을 갖고 있다고 보았으므로 가정형편이 어려워 힘든 삶을 살았던 이하복의 할아버지께서는 저 산을 보고 부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Fig. 10. Round Shape Mt. thought to get Wealth, View in front of the Sarangchae

사랑채를 건립 한 후 사랑채 뒤쪽, 안채 부엌 앞의 트인 부분에는 2벌대 기단 위에 전면 2칸 측면 1칸 규모의 광채를 두었다. 광채는 안마당 쪽으로 널빤지 2쪽을 이어 만든 널문이 밖에서 빗장을 걸도록 되어 있고 좌측 상부에는 통풍과 빛의 유입을 위한 살창이 있다.

이렇게 ㄱ자형 안채와 일자형 사랑채 그리고 광채는 전체적으로 ㄱ자형이 구성되면서 반가(班家)의 형태를 보여준다. 이런 형태는 명당의 기운을 잘 보존할 수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문화재로 지정된 공간이다.

문화재로 지정된 ㄱ자형의 초가 옆으로는 40여년 전인 1971년 신축한 아래채가 있다. 아래채 6칸으로 부엌 2칸, 두 칸의 방, 그리고 두 칸의 광으로 되어 있으며 이 하복선생의 자서전에 따르면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살기 위해서 신축하였다고 한다. 또한 이 건물의 재목은 막동 장군산 북쪽 기슭에 있는 증조부의 무덤과 지척에 있던 나경목의 집을 사서 해체하여 옮긴 것으로 집은 재종조부 홍규씨가 지었다고 한다. 그리고 아래채와 마주하는 그 위(북쪽)에는 최근에 복원한 것으로 보이는 위채가 있다. 위채는 좌측으로부터 부엌 2칸, 방 두칸 그리고 대청 한칸으로 구성된 6칸 전퇴 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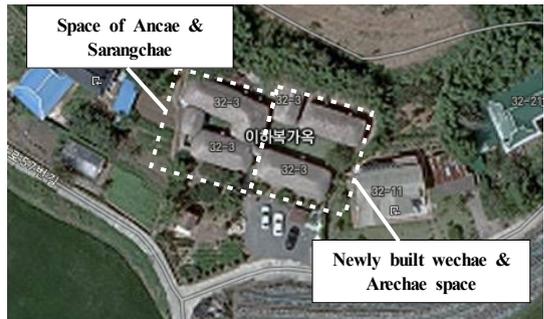


Fig. 11. Satellite Image of the House
Sauce : Daum Skyview 2009

전체적인 배치를 살펴보면 문화재로 지정된 안채와 사랑채 공간은 마치 또아리를 틈 것처럼 딱 짜인 느낌을 주는 데 반해 새롭게 신축된 아래채와 위채 등은 一자형으로 배치하고 마당을 넓게 두어 개방적인 느낌은 주지만 감싸는 느낌은 적어 기운을 모이는 갈무리하는 정도는 다소 약해 보인다.

4. 결론

본 연구는 서천군 기산면 신산리 120번지에 위치한 중요민속자료 제197호 이하복 가옥을 대상으로 입지분석 및 공간구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가옥은 북서쪽에 위치한 주산에서 내려온 용맥이 동남쪽으로 내려온 현무봉을 배산(背山)하고 전면 에 삼합수로 합수를 이룬 곳 안쪽에 임수(臨水)하도록 자리 잡았다.

둘째, 가옥의 입지는 형국론상 면견형(眠犬形)으로 가옥 앞으로 구유에 해당되는 안산이 잘 갖추어져 있다.

셋째, 가옥은 초가로 이은 한옥이 여섯 채였는데 현재 다섯 채가 남아있고 서쪽에 있는 안채가 모옥(母屋)이다.

넷째, 안채는 전면 6칸, 측면 칸 반의 ㄱ자 전퇴집으로 서쪽에 부엌이 동측에 건넌방 및 헛간이 있는 데 안방 옆의 대청은 방을 후에 개조한 것이다.

다섯째, 사랑채는 경사지에 축대를 쌓은 후 2벌대의 기단위에 지었다. 구조는 전면 4칸 반 측면 칸 반으로 전면과 우측에 퇴를 두었고 안채와 달리 쌍창을 두고 그 위로 빗살무늬교창을 두어 채광을 피하면서 격을 높이고 있다.

여섯째, 가옥은 ㄱ자형 안채와 일자형 사랑채 그리고 광채를 통해 ㄷ자형을 구성하여 안마당을 형성하면서 안온한 환경을 만들고 있다.

이상에서 이하복가옥은 풍수적으로 잘 갖추어진 입지를 선정하여 안채, 사랑채와 광채 등을 대지에 순응하여 조성한 중부지방의 전통적인 농가의 모습을 하고 있는 초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날 화려하고 규모가 큰 반가들이 많이 남은 현실에서 이하복 가옥은 조선시대 민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몇 채 안 되는 초가로서 건축학적인 가치가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5] Du-gyu Kim, Pungsu Dictionary Bibongchulpansa, 2005

한 종 구(Jong-Koo Han)

[정회원]



- 1991년 2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공학석사)
- 2001년 2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공학박사)
- 1999년 7월 ~ 2000년 2월 : (독) 카이지슬라우턴공대 연구학자
- 2002년 3월 ~ 현재 : 청운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관심분야>

건축계획, 전통건축이론, 한옥과 풍수

References

- [1] Cheongam Cultural Foundation, Watda, Saranghaetda grigo Gatda, Hagerim Medea, 2011, p.94
- [2] Cheongam Cultural Foundation, Ibid p.94
- [3] Wang-gi Lee, Architectural Heritage 5 (Chungnam), Gimundang, 1999
- [4] Jong-koo Han, Seocheon Lee Ha-Bok's House, Hanokmunhwa V.33, Hanok Munhwawon, 2013